

# 中世語 合用並書의 音價 繢論

權 在 善

<目

次>

- |                              |                |
|------------------------------|----------------|
| I. 序                         | 體同化와 合用並書화의 比較 |
| II. 現代語에 있어서 非有氣<br>子音의 合體同化 | IV. 變成合用並書의 音價 |
| III. 現代語의 非有氣子音合             | V. 固定合用並書의 音價  |

## I. 序

筆者가 「嶺南語文學」4輯에 「合用並書의 音價考」라는 中世語의 合用並書의 音價를 討하는 論文을 發表한 바 있다.<sup>1)</sup>

本稿는 그 論文에서 未盡한 바를 补하고 訂正 補完하여 結論을 떠고자 함이 目的이다.

中世語 資料를 15世紀代의 것에 限定하여 考察해 보면 中世語 並書에 特殊한 音聲의 制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 (1) 合用並書는 國語音 表記에만 使用되었다.
- (2) 先行子音이 「ㅅ」과 「ㅂ」의 두 音種에 制限되고 있다.
- (3) 子音끼리 結合함에 있어서 一定한 制約이 있어 「ㅆ >NN >NN >NN >NN >NN」 등의 結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sup>2)</sup>

先音		ㄱ	ㄷ	ㅂ	ㅅ	ㅈ	ㅎ	ㅋ
後音	ㄱ	○	○	○	×	×	×	○
	ㅅ	○	○	○	×	×	×	○

1) 權在善：合用並書의 音價考(嶺南語文學 4輯) 1977.

2) 並書의 結合樣狀을 살펴보면 流音은 並書結合이 不可能하고 有氣音과 鼻音은 齒槽音(+coronal, -vocalic)만 結合이 可能하다. 그래서, 結合이 可能한 音域만 들어 實際의 結合可否를 圖示한다.

## <2> 嶺南語文學(第 5 輯)

ㅂ	×	○	×	○	○	○	×
ㅍ	○	○	×	×	×	×	×

\* 結合이 이루어지는 것은 ○標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標로 表示하였다.

위의 (1)의 事實은 合用並書가 國語에 限한 特殊한 音韻임을 들어낸다. 그리고, (2)와 (3)은 並書의 內在的인 音聲上의 制約이겠는데, 單純한 複子音으로 보면 그러한 制約이 이루어질 수 없다. 外國語의 경우로 보아 語頭複子音(初聲並書)의 先行音이 「ㅅ」과 「ㅂ」에만 制約되는 例를 보지 못하겠고 理論上으로 따져도 구태어 「ㅅ」과 「ㅂ」에 限定될 것은 아니다. 특히 單純한 複子音인 경우 杪[sc]ㅅㅌ[sth] 杪[pn]등의 連結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筆者は (2)와 (3)의 音聲的 制約에 注目하고 다음 같은 假定을 構成하였다.

- ① 合用並書는 單純한 複子音이 아니다.
- ② 並書가 비록 音素로서는 消滅하였지만 音聲으로는 現代語에 어떤 혼적을 남기고 있을 것이다.
- ③ 「ㅅ」과 「ㅂ」이 當時의 國語 音素를 表記하는 記號라면 이들 記號가 轉寫하고 있는 實際의 音聲은 「ㅅ」/s/과 「ㅂ」/p/의 어떤 變異音일 수도 있다.
- ④의 假定에 依하여 「ㅅ」/s/과 「ㅂ」/p/의 變異音을 理論上으로 擴張하여 생각하면 다음처럼 [ç]와 [w]도 包含시킬 수 있다.

ㅅ/s/      [s z ʃ ʒ ç չ]

ㅂ/p/      [p b w]

이와 같은 變異音을 考慮하고 音種上으로 「ㅂ」과 「ㅅ」의 두 音種에 限定될 수 있는 變異音을 생각하면 [ç]와 [w]를 찾아낼 수 있다. 이들은 半母音이라는 點에서나 또는 口蓋性과 脣化性이라는 點으로 音種上 制限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②의 假定에 依하여 語中 並書化의 環境을 現代語에서 찾아서 그 音種의 特性을 注意 깊게 觀察하였다.

原來 並書가 아니던 語形이 並書化하기도 하는 音聲環境은 다음 같은 것 이 있다.

- |                       |                |
|-----------------------|----------------|
| (1) 갑간(暫間)(釋譜 13:53)  | → 잡짠(月釋 9:29)  |
| 속가락(指)(月釋 18:44)      | → 손까락(月釋 7:38) |
| (2) 침디(易)             | → 쇠띠(內 3:6)    |
| 업시(無)(樂章·處容)          | → 어띠(樂軌:處容)    |
| (3) 거슬쁘다(逆)(月釋 13:35) | → 거슬즈다(內 3:44) |
| 브르쁘다(開)(三綱烈 18)       | → 브릅쁘다(朴重下 19) |

(1)은 間音의 경우이고 (2)는 「ㅂ」終聲의 경우이고 (3)은 並書의 「ㅂ」先行音이 앞 音節의 終聲으로 바뀐 것이다. (1)과 (3)의 條件에 맞는 例를 가려서 發音을 하면서 觀察해 보면, 間音과 並書의 先行子音이 終聲化한 插腰音은 각각 두 가지로 다르게 發音됨을 알 수 있다. 이들 間音과 插腰音은 終聲으로 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와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가 있다.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는 「ㅅ」이나 「ㅂ」의 발음이 아주 不完全하여 「ㅅ」은 [ç]로, ㅂ은 [w]로 變한 느낌이 들며 이들은 잘 意識되지 않으면서 音節境界가 앞 音節의 母音 다음에 이루어진을 느낀다.

이러한 點을 미루어 合用並書의 先行音이 「ㅅ」은 [ç]이고 「ㅂ」은 [w]라고 보면 結合上의 制約性이 쉽게 解釋된다.

15世紀代의 並書에는 다음 같은 結合이 없는데, 그것은 調音이 비슷하여 分別되지 못하고 한 音으로 吸收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 (1) ㅋ[cts]     調音位置가 비슷하고 摩擦性이 共通
- (2) ㅆ[cs]     調音位置가 비슷하고 같은 摩擦音
- (3) ㅅㅌ[çtʰ]     摩擦性이 같음.
- (4) ㄱㅂ[wk]     後舌面調音이 비슷함.
- (5) ㄱㅃ[wp]     兩脣調音이 비슷함.
- (6) ㅂㄴ[wn]     [w]는 後舌面이 높아지고 [n]는 軟口蓋를 내려서 後舌面에서 비슷한 調音이 됨.
- (7) ㅋㅂ[wcp]     [w]와 [p]가 分別되지 못하므로 決局 [çp]
- (8) ㅋㅆ[wcts]     [ç]와 [ts]가 分別되지 못하므로 決局 [wts]
- (9) ㅋㅅ[wcs]     [ç]와 [s]가 分別되지 못하므로 決局 [ws]
- (10) ㄱㅌ[wctʰ]     [ç]와 [tʰ]가 分別되지 못하므로 決局 [wtʰ]
- (11) ㄱㄴ[wcn]     [w]와 [n]가 分別되지 못하므로 決局 [çn]

以上과 같은 見解로 前揭 論文에서 合用並書의 先行子音 「ㅅ」과 「ㅂ」은 [ç]와 [w]라고 結論지었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두 子音 사

#### <4> 墾南語文學(第 5 輯)

이에 있었던 音節境界가 어떻게 移動되었는가가 問題이다. 合用並書의 先行子音을 [ç]와 [w]로 보면 半母音이 있을 可能性도 있고 그렇다면 母音과 結合하는 것이 오히려 當然하고 다음 例의 (A)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實際는 (B)와 같다.

	(A)	(B)
이까장	[iç-ke-tsaŋ]	[i-çke-tsaŋ]
어삐	[əw-si]	[ə-wsi]

[ç]와 [w]로 推定한 先行子音이 다음 音節의 初聲子音과 結合하는 現象을 說明할 方途가 없어 子音과 結合하는 特殊한 半子音을 假定했다. 그러나, 이러한 半子音의 假定은 非合理的이며 音聲實相에 맞지 않으므로 口蓋化音과 脣化音으로 訂正하고 그 問題에 대해 더 補完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 II. 現代語에 있어서 非有氣子音의 合體同化

앞에서 例를 든 바 있는 다음 같은 말의 發音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잇과(理科)

찹쌀(粘米)

위 낱말은 國語言衆 間에는 다르게 發音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發音되고 있다. 한 가지는 語中終聲을 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語中終聲을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이다. 語中終聲을 分明하게 발음하는 경우는 다음처럼 發音된다.

잇과[it<sup>l</sup>-k'wa]

찹쌀[ts<sup>h</sup>ap<sup>l</sup>-s'al]

語中終聲을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는 間音과 捶腰音「ㅁ」을 가진 낱말을 發音하는 동안에 偶發的으로 일어나는 發音이다. 그 때 終聲이 意識되지 않지만 語中에 終聲을 갖지 않는 경우와는 다르게 發音된다.

이들의 發音의 差異를 國語言衆들이 느끼는 대로 한글과 音聲記號로 表記하면 다음과 같다.

(A)는 語中終聲을 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이고 (B)는 語中終聲을 不分明

하게 發音하는 경우이고 (C)는 語中終聲이 없는 경우이다.

### (1) 잇과(理科)

(A)	(B)	(C)
잇파	이파	이파
it <sup>l</sup> -kwa	i-k'wa	i-kwa

## (2) 찹쌀(粘米)

찹쌀	차쌀	차쌀
tsʰap <sup>1</sup> -s'äl	tsʰa-s'äl	tsʰa-s'äl

(B)의 경우는 終聲이 잘 느껴지지 않는 대신에 다음 音節의 子音이 (A)의 경우보다 더 되게 나는 것으로 느껴진다. (2)의 「찹쌀」의 경우는 다음 音節이 硬音이기 때문에 差異는 分別하기 어려우나 慶尚道方言으로, 「찹쌀」을 發音해 보면 (B)의 다음 音節의 初聲이 더 되게 느껴진다.

### (3) 찹쌀(粘米)

찹쌀	차쌀	차살
tsʰap¹-sal	tsʰa-s'äl	tsʰa-sal

위와 같은事實에서 語中終聲音을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의 몇 가지 特徵을 指摘할 수 있다.

- ① 語中終聲을 意識하지 않는다.
  - ② 앞 音節의 母音 다음에 音節境界가 이루어 진다.
  - ③ 다음 音節의 初聲이 되기 느껴져 副調音이 加重한 것이 된다.

以上은 單純한 國語言衆의 意識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具體의 調音을 觀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t<sup>l</sup>]의 不分明한 音은 齒槽閉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대신 前舌面과 後硬口蓋의 間隙이 狹小化되어 [t]와 비슷한 調音狀態가 되고 동시에 摩擦을 수반한다. 「잇파」(理科)의 語中終聲을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發音으로 「잇」만을 내어 보면 摩擦을 일으키며 [ç]와 비슷한 發音이 된다. 이 [t<sup>l</sup>]를 不分明하게 發音한 音은 다음 子音과 分離되어 發音되지 않고 다음 子音과 겹쳐 發音된다. 곧 前舌面과 後歎口蓋가 狹小化된 狀態에서 發音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原來의 두 音은 어느 것도 完全한 狀態로 實現되지 못한다. [t<sup>l</sup>] 終聲은 [ç] 調音狀態로 되며 다음 子音은 이러한 影響을 받아 調音狀態가 多小 變한다. 다음 發音을 살펴보자. (A)는 語中終聲을分明하게 發音하는 경

우이 고 (B)는 語中終聲을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이다.

(A)	(B)
나릇터(漁) [na-rut <sup>t</sup> -tʰə]	[na-ru-çtʰə]

(A)의 [tʰ]는 舌端一齒槽音이다. 그러나 (B)의 [çtʰə]의 [tʰ]調音은 \*[ç]의 影響을 받아 前舌面一齒槽로 바뀐다. 그뿐아니라 이들은 한 개의 音으로 意識된다.

[p<sup>t</sup>]의 不分明한 音은 兩脣閉鎖가 完全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대신 圓脣性을 떠우며 거기에 겹치는 다음 子音의 閉鎖性의 影響을 받아 舌面이 全體的으로 높아져 [w]와 비슷한 調音狀態가 되며 摩擦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子音과 分離하여 發音하지 않고 겹쳐 發音하게 되며 다음 子音도 分離되어 發音되지 않고 앞 調音 \*[w]에 겹쳐 發音하게 된다. 따라서, 原來의 두 音은 어느것도 完全한 狀態로 實現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p<sup>t</sup>] 終聲은 [w] 調音狀態로 되며 다음 子音은 [w] 調音狀態에 制約되어, 옆으로 퍼지고 앞으로 뻗던 혀를 다소 오물어 들이고 調音하게 되므로 다소 調音位置의 變化를 가져오며 그 두 音은 한 音으로 意識된다.

다음 發音을 살펴보자. (A)는 終聲을 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이고 (B)는 終聲을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이다.

(A)	(B)
찹쌀 [tsʰap <sup>t</sup> -s'al]	[tsʰa-ʷs'al]

(A)의 [s']의 發音 때는 혀가 앞으로 뻗고 옆으로 퍼지면서 調音되지만 (B)의 [\*s']의 [s']의 發音 때는 겹친 圓脣性 때문에 혀가 다소 오물린 狀態에서 調音되어 調音位置도 다소나마 혀의 앞쪽으로 變한다.

위에서 說明한 調音을 살펴보면 語中終聲「ㅅ」과 「ㅂ」의 不分明한 發音과 겹친 音은 각각 一種의 口蓋化音(palatalized sound)과 脣化音(labialized sound)이다.

그러나, 이들은 後續하는 口蓋性母音이나 圓脣性母音의 影響에 依한 逆行同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語中母音間に 隣接했던 두 子音이 原來가졌던 音聲資質을 完全히 잃지 않고 二重調音性을 지니면서 한 개의 音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 音韻變化는 合體同化(coalescent assimilation)라 하겠다.<sup>3)</sup>

3) Daniel Jones는 合體同化(coalescent assimilation)를 「連續된 두 소리가 合體되어 元來의 두 소리의 어느것하고도 다른, 한 개의 새로운 소리를 이루는 경우」라고 定義하고 英語에서 [tj→tʃ]의 경우를 들었다.

Daniel Jones: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ninth edition). pp. 217~223.

國語의 ① 非有氣子音間의 合體同化音은 母音과 合體되거나 그 影響에 의하여이 루어진 口蓋化音과 脣化音과는 그 音價가 틀린다. 母音에 의한 合體音은 그 副調音이 單純한 圓脣性과 口蓋性에 그치지만 非有氣子音間의 合體音은 그副調音이 口蓋性과 圓脣性 外에 다른 音性資質을 수반한다. 主調音의 音聲資質을 둥둥그려 [c]라고 하고 副調音의 音聲資質은 具體的으로 나타내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母音에 의한 口蓋化音과 脣化音	(2) 非有氣子音間의 合體同化音
口蓋化音	脣化音
[ +high ]	[ +round ]
[ +strid ]	[ +round ] [ +back ]

곧 國語의 非有氣子音間의 合體化에 있어서는, 口蓋化音의 경우에는 口蓋性 外에 摩擦이 수반하며, 脣化音의 경우에는 口腔全體가 狹小化되면서 後舌面도 높아진다. 이러한 音聲資質은 [ç]와 [w]의 獨立 音聲資質을 거의 나타내는 것이된다.

이러한 音聲 差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音聲記號로써 分別해야 하겠는데, 分別한다면, 다음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

	母音에 의한 것	非有氣子音間의 合體音
口蓋化音	c <sup>y</sup>	çc
脣化音	c <sup>w</sup>	wc

\*[c]는 主調音을 나타냄.

그러나 本稿에서는 前論文들과 連關係를 살리고 印刷의 便宜를 위해서 다음

이와 꼭 같은 예는 國語에는 없다. 그런데, 김 영기는 逆行有氣化(regressiv aspiration)를 단순히 合體라고 보았다.

Young-Key Kim: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 124.

Sanford A. Schane은 「두 개의 連續된 子音이 原來의 두 소리의 資質을 共有하는 한 개의 소리로 代置되는데, 이러한 合體는 一種의 同化에 속한다」고 合體同化를 定義하고 다음 같은 경우를 例를 들고 있다.

- ① 우리 말의 有氣音化(障礙音과 h와의 合體)
- ② 聲門化子音(子音과 聲門破裂音과의 合體)
- ③ 口蓋化子音(子音과 y와의 合體)
- ④ 脣化子音(子音과 w와의 合體)
- ⑤ 破裂音과 摩擦音이 合體된 破擦音

Sanford A. Schane: generative phonology. pp. 54~55.

같이 사용한다.

(A) 合體된 것을 強調하는 경우

口蓋音 [ɛC]

脣化音 [ʷC]

(B) 一般 경우

[çc]

[wc]

國語의 非有氣子音間의 合體音은 複子音的 單音(digraph)인 Nupe語의 kp gb gm의 경우와 비슷해 보인다. 이 軟口蓋・脣音을 軟口蓋化脣音으로 解釋하고 있지만<sup>4)</sup> 이것은 對等한 間隙의 子音이 結合한 것으로 그 主從이 分明치 못하다. 이것에 비해서 國語의 非有氣音의 合體音은 間隙의 差異가 나서 主從이 뚜렷하므로 Nupe語의 軟口蓋・脣音의 경우와는 差異가 난다. 이 合體同化는 語中子音中에서 先行終聲子音을 不分明하게 發音하므로써 이 루어지는 音韻變化이다. 現代語에서 이러한 不分明한 發音이 可能한 終聲은 어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A)는 終聲을 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이고 (B)는 終聲을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이다.

(A) (B)

(1) 먹고(食)	[mɛkʰk'o]	×
(2) 잡고(執)	[tsapʰk'o]	[tsa-ʷk'o]
(3) 간고(報)	[kapʰk'o]	[tsa-ʷk'o]
(4) 묻고(埋)	[mutʰk'o]	[mu-çk'o]
(5) 맡고(委)	[matʰk'o]	[ma-çk'o]
(6) 엇고(續)	[i:tʰk'o]	[i:çk'o]
(7) 찾고(尋)	[tsʰatʰk'o]	[tsʰa-çk'o]
(8) 쫓고(追)	[ts'otʰk'o]	[ts'o-çk'o]
(9) 밀고(推)	(milgo)	[mi:go]
(10) 안고(抱)	[ango]	[ango]
(11) 참고(忍)	[tsʰamgo]	[tsʰango]
(12) 안지(抱)	[a:nts'i]	×
(13) 참지(忍)	[tsʰamts'i]	×
(14) 쟁살(粟)	[tsoʰsp'al]	[tso-ʷs'al]
(15) 나릇터(津)	[narutʰtʰə]	[naruçtʰə]

위 例의 (10)과 (11)의 (B)發音은 子音接變에 依한 것이고 (9)의 (B)는 終聲이 脫落한 例이다. 이것을 빼고 나면 不分明한 發音은 (1) (2) (3) (4)

4) Larry M. Hyman, phonology-Theory and analysis. 1975, p.54.

(5) (6) (7) (8) (12) (13) (14) (15)만이 可能하다. 現代國語의 表記上 有氣音終聲의 紹字는 紹字法에 依한 人工的인 處理이고 實제의 音聲으로는 終聲에 有氣音 「k<sup>h</sup> t<sup>h</sup> p<sup>h</sup>」 등은 發音되지 않는다. 그리고, 紹字上 終聲으로 「ㅅ ㅊ ㄷ」등으로 表記된 것은 實상 모두가 [t<sup>l</sup>] 音이다. 15世紀代에는 終聲에 「ㅅ」[s]과 「ㄷ」[t], 「ㅈ」[ts]이 辨別되었다. 그러나 現代語에서는 終聲의 「ㅅ」[s]과 「ㄷ」[t], 「ㅈ」[ts] 등이 中和되어 [t<sup>l</sup>] 音만 實現되고 있다. 現代語에서 實제의 音聲으로 보면 위에서 例를 들은 (1)에서 (15)까지의 語中終聲中에서 不分明한 發音이 可能한 것은 [t<sup>l</sup>]와 [p<sup>l</sup>] 두 音에 限定된다.

그리고, (1)에서 (14)까지는 非間音이고 (15)는 間音이다. 非間音은 分明하게 發音하는 것이 原則이고 不分明한 發音은 드물게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間音은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때로는 分明하게 發音하기도 한다. 分明하게 發音한다든가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것은 어떤 音聲의 條件에 依한 것이 아니고 偶發的인 것이며 이 두 가지의 發音이 共存하고 있다.

間音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15世紀代나 지금이나 그 表記는 「ㅅ」으로 行한다. 그러나, 15世紀代의 「ㅅ」은 그 音價가 [s]이고 現代의 「ㅅ」은 그 音價가 [t]이다. 그러므로, 現代語의 [t] 終聲은 그 起源이 15世紀代의 「ㅅ」[s]이라 하겠다.

本稿에서 言及하고 있는 合體同化는 母音間 先行子音을 不分明하게 發音함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不分明한 發音이 先行過程이 된다. 그 不分明한 音이란 實상 當該 音의 弱化이다. 15世紀代에 있어 母音間子音의 弱化現象에서 同類의 特殊한 弱化音 音素로 代置된 子音은 「ㅅ」과 「ㅂ」이다.<sup>4)</sup> 이 音은 弱化되어 母音間에서 「△」「ஃ」이 되었다.

(A) ㅅ → △

벗어(扮)(月釋 7:3)

비서(月釋 2:5)

4) 母音間 弱化音으로 쓰인 것에는 「ㄹ」같은 것도 있으나 이들은 다른 位置에 自由롭게 쓰인 소리다. 다음 (B)의 母音間 「ㄹ」은 (A)의 「ㄷ」終聲이 弱化된 것이다.

(A)

물조봉연(問)(釋譜 13:21)

듣거(聞)(釋譜 19:6)

불거든(潤)(教箇 6:10))

(B)

무려(龍62)

드려(龍98)

부려(教10)

그러나, 「△」과 「ஃ」은 漢字音과 「설설」(擬態語)등 特殊例를 除外하면 모두가 母音間의 弱位化置에 만 쓰였다.

## <10>嶺南語文學(第5輯)

짓고(作)(月釋 21:37)	지어(月釋 2:69)
앗이 라(弟)(釋譜 13:2)	아시(初杜解 8:38)
엿이(狐)(月釋 2:76)	엿이나(楞解 2:2)

(B) ㅂ → ㅍ

덥다(暖)(月釋 1:18)	더본(月釋 1:29)
얇디(薄)(月釋 17:53)	열흔(龍 30)
어렵더니(難釋 6:21)	어려분니(釋 6:11)
수비(易)(法語 2)	수匪(訓註)

子音 앞에서는 弱化되지 않음이 原則이다. 그러나, 子音 앞에서 弱化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弱化狀態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弱化된 다음에 間隙이 큰 (弱化된) 子音이 올 때는 그 弱化狀態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음 예는 그런 점을 端的으로 나타낸다.

「웃보리」(笑)는 「웃보리」가 弱化된 것이다. 「웃보-」는 「웃-」(笑)의 動詞語幹에 形容詞派生接尾辭 「보」가 添加된 것이다.

(A)	(B)	(C)
밀다(個)	밀보다	미듭다
깃다(悅)	깃보다	
웃다(笑)	웃보다	우습다(>웃음다>우읍다)
밀블 姫:亮(類合下 25)		
미뚫거시니(釋譜 6:11)		
밀비(法華 2:90)		
밀읍다(現代語)		
깃소봉니(龍 41)		
깃븐 모습(蒙法 18)		
웃거나(月釋 21:89)		
우읍다(古時調 孝宗)		
웃보리(龍 16)		
웃匪(月釋 7:5)		
우습다(現代語)		

윗 예의 (B)처럼 子音 다음에는 「보」派生接尾辭가 쓰이는 것이 原則이다. (C)처럼 調母音을 넣어서 開音節化한 後 「ㅂ」派生接尾辭를 쓰는 경우도 있다. 「웃보-」가 「웃보-」로 弱化되는 過程을 母音間 「ㅅㅂ」[sp]가 繼起的인

發音이라는 점을 考慮하면 다음처럼 理解된다.

웃보 → 웅보 → 웅보

[uspi] [uzpi] [uzβi]

먼저 先行母音의 順行同化로 「웃」[us]이 「웅」[uz]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後續母音의 逆行同化로 「보」[pi]가 「보」[βi]로 바뀌게 되어 그 앞의 弱化音「△」[z]이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웅보」[uzpi]의 段階를 假定할 수 있고 子音 앞에서도 弱化現象은 可能하다고 보겠다.

子音 앞에서의 「ㅅ」과 「ㅂ」의 弱化段階를 考慮하면 合體同化의 過程은 다음과 같다.

- (1) tsʰap-s'äl … 原來의 音
- (2) tsʰapβ-s'äl … 先行子音弱化
- (3) tsʰa-w-s'äl … 合體同化

그러나, 上掲 (1)은 音韻變化의 過程으로 存在할 수 있으나 現實的으로 存在할 수는 없다. 그것은 國語의 弱化에서 子音 앞에서는 弱化가 유지될 수 없는 制約 때문이다.

國語에서 合體(coalescence)로서 有氣音化는 이미 알려진 事實이나 「ㅅ」, 「ㅂ」과 다른 子音과의 合體는 아직 注目되지 않았다.

이 非有氣音合體同化의 特徵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語中 母音間子音의 終聲과 初聲의 合體이다.
- ② 合體同化의 先行終聲은 [tʰ]와 [pʰ]에 限定되어 있다.
- ③ 合體로 말미암아 두 子音間에 있었던 音節境界는 없어지고 그 結果 앞의 母音과의 사이에 音節境界가 생긴다.
- ④ 合體同化는 主로 間音과의 隣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⑤ 合體同化는 그 同化에 依한 語形이 固定되지 못하고 合體形과 非合體形을 並存시키고 있다.

### III. 現代語의 非有氣音合體同化와 合用並書化의 比較

固定된 並書 外에 原來 並書가 아니던 語中子音이 合用並書化한 例가 많아 看는 데, 이 中世語의 合用並書화와 現代語의 非有氣子音合體同化를 比較

## <12>嶺南語文學(第5輯)

해 보면 같은 音韻現象임을 알 수 있다.

첫째 語中子音의 終聲과 初聲의 合體라는 점에서 서로 一致한다.

값간(暫間)(釋譜 13:53)	잠깐月(釋 9:29)
손가락(指)(月釋 18:44)	손외탁(月釋 7:38)
넘더다(溢)(月釋 13:10)	넘씨다(釋譜 9:10)
숨기다(呑)(月釋 13:28)	숨끼다(杜初 8:59)

둘째, 先行終聲이 中世語에서는 [s]와 [p]이고 現代語에서는 [t]와 [p]로 두 音으로 制約된 점이 一致한다. [s]와 [t]는 音聲上으로는 다른 것이지만 音韻史의 面을 考慮하면同一한 音聲的 制約이라고 보겠다.

한글 「ㅅ」은 中世語의 音價가 [s]이며 終聲으로서도 그 音價는 역시 [s]이다. 그래서, 終聲에서 「ㅅ」[s]과 「ㄷ」[t]이 辨別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終聲에서는 「ㅅ」[s]과 「ㄷ」[t]이 中和하여 [t]로 實現되고 表記上으로는 主로 「ㅅ」으로 表記되었다. 現代語에 와서는 終聲에는 [s]가 없고 [t]로 中和되고 말았으므로 現代語의 終聲 [t]는 中世語의 [s]에 對應되는 것이다. 그리므로 中世語의 [s], [p]와 現代語의 [t], [p]의 두 音으로의 制約은 같은 音聲的 制約인 것이다.

셋째, 非有氣音合體同化는 그 先行音이 主로 間音이라는 점이 서로 一致된다. 中世語의 並書化에 있어서 그 先行子音은 間音 「ㅅ」과, 「ㅅ」「ㅂ」의 終聲인데, 先行子音 「ㅂ」은 앞 音節의 終聲이지만 先行子音 「ㅅ」은 主로 間音이다.

### (A) 앞 音節의 終聲인 경우

쉽더(易)	쉬띠(內3:6)
얼서(無)(樂音處容)	여띠(樂軌・處容)
섞그릴(混)(月釋 2:49)	섞電子郵件(釋譜 13:24)
앗기다(惜)(釋譜 6:24)	아끼다(杜初 23:32)

### (B) 間音인 경우

값간(暫間)(釋譜 13:53)	잠깐月(釋 9:29)
손가락(指)(月釋 18:44)	손외탁(月釋 7:38)

네째, 同時代에 語中 두 子音 사이의 音節境界가 移動한 語形과 移動하지 않는 語形이 並存한 것이 一致한다.

잇 ㅋ장(至此)(月釋 2:62)	이 ㅋ장(釋譜 13:37)
닮깝다(閼)(法訖 7:126)	닮깝다(月釋 2:51)
넓리다(溢)(月釋 2:48)	넓여다(釋譜 9:20)
넓 丈(踏)(釋譜 6:34)	넓여(內 1:6)
거슬즈다(逆)(內 3:44)	거슬뜨다(月釋 13:35)
업시(無)(樂章·處容)	어찌(樂軌·處容)

다섯째, 語中의 두 子音의 사이에 音節境界가 있었던 것이 音節境界가 두 子音 앞으로 移動하는 것이 一致한다.

쉽디	→ 쇠씨
업시	→ 어찌
잇 ㅋ장	→ 이 ㅋ장
짧잔	→ 짧짠

이와 같은 音節境界의 移動은 두 子音이 合體同化하여 하나의 單音으로 機能한 것을 證明한다.

國語의 音節構造는 中世語에서나 現代語에서나 母音間에 두 子音이 있을 때는 하나는 앞 音節의 終聲이 되고 하나는 다음 音節의 初聲이 됨이 原則이다.

일마다(龍 1)
불취(龍 2)
남군(龍 2)
곳묘코(龍 2)
울묘삼(龍 3)
맛두사리길씨(龍 6)
안조니(龍 7)

그럼에도 不拘하고 音節境界를 사이에 둔 두 子音이 結合되면서 音節境界가 그 앞에 이루어진 것은 두 子音이 合體되어 하나의 單音으로 바뀐 것을 들어낸다.

以上에서 보아온 것처럼 中世語의 並書化와 現代語의 合體同化를 比較해 보면 諸特徵이 完全히 一致하고 並書化의 경우 두 子音間에 있었던 音節境界의 移動은 合體된 事實을 들어내는 證據가 되므로 中世語의 合用並書化는

現代語와 같은 合體同化로 認定된다.

#### IV. 變成合用並書의 音價

中世語 資料上 原來 並書가 아니던 것이 並書化된 並書는 固定合用並書에 대해 變成合用並書라고 區分하기로 한다.

이 變成合用並書는 現代語의 合體同化와의 比較에서 이것 역시 그와 똑같은 語中子音의 合體同化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ㅅ」字 先行並書는 口蓋化音의 表記이고 「ㅂ」字先行並書는 脣化音表記이다.

그런데, 現代語의 경우로는 合體된 子音의 口蓋化音과 脣化音은 音素로 定立되지 않아 合體音과 非合體音이 辨別되지 않으며 合體音의 口蓋性과 圓脣性은 意識되지 않는다.

國語言衆이 소리대로 表記하는 경우 左便과 같은 音聲은 右便과 같이 意識表記한다.

- (1) ik'wa 이파
- (2) ick'wa 이파
- (3) itk'wa 잇파

그런데, 合用並書의 경우는 合體音과 非合體音을 辨別表記한 것이 된다.

- (4) igədzaŋ 이 그장
- (5) içkedzaŋ 이 쇤장
- (6) iskedzaŋ 잇 그장

並書로 해서 (4)와 (5)의 音聲的 差異를 區分하여 表記할 수 있었다. 이러한 差異 나는 表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當時에 合體音은 非合體音과 辨別되는 音素로 定立되어 있었음을 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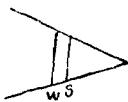
그런데, 이 並書 表記에서 두 가지의 音聲적 特徵을 들어내는 表記方法을 形成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合體音을 두 개의 子音으로 表記한 것은 合體音의 二重調音性을 明示하는 것이 되고, 둘째, 두 子音 사이의 音節境界를 없애므로써 合體된 單音임을 나타낸다.

決局 合用並書의 先行子音「ㅅ」과 「ㅂ」은 각각 口蓋性과 圓脣性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ç]과 [w]이 半母音일 것 같으면 /s/ 「ㅅ」과 /p/ 「ㅂ」의 變異音이기 때문에 音素의 記號 /s/ 「ㅅ」와 /p/ 「ㅂ」을 使用했다고 보겠

으나 合體된 口蓋化音과 脣化音의 口蓋性과 脣化性을 表記하는 데, /s/ 「ㅅ」와 /p/ 「ㅂ」의 記號를 使用한다는 것은 合體音을 複子音으로 分析하지 않고 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注目되는 것은 口蓋化音과 脣化音은 破裂音과 摩擦音 등 口腔의 間隙이 狹小한 調音이 主調音인데, 口蓋性과 兩脣性은 그보다 間隙이 크다. 口腔을 閉鎖하기 위해서는 一段 間隙을 넓혀야 하고 그 넓혀진 間隙에서 좁혀야 하므로 間隙이 큰 副調音이 先行되고 間隙이 적은 主調音이 後續하게 되어 順序가 副調音 主調音이 되고 調音間의 差異가 느껴진다.

더우기 副調音 [ç]와 [w]는 母音에 의한 口蓋化音과 脣化音과는 달라 音聲的 特徵이 뚜렷하여 二重調音이 아주 두드러진다.



이러한 調音上의 差異에 依據하면 音素分析上 二重調音을 複音素로 解釋할 수 있겠다. 이러한 音素分析 때문에 口蓋性과 兩脣性을 獨立音素로 解釋하거나 각각 /s/ 「ㅅ」와 /p/ 「ㅂ」의 變異音으로 取扱하여 두 音素記號로 表記한 것 이겠다. 따라서, 並書의 複子音字形表記는 音素解釋의 段階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音聲上의 二重調音性을 反映한 것이라 하겠다.

脣化音의 二重調音을 두 音素로 分析한다면 다음과처럼 그 先行音은 [w]가 될 것이다.

$$[wt] \rightarrow [w][t]$$

이 [w]는 中世語에 存在하였던 子音音素 「ㅂ」/p/과 「ㅍ」/p'/과 比較해 보면 兩脣의 間隙으로는 [w]는 [β]의 變異音으로 될 것이다.<sup>5)</sup> 그렇다면 마땅히 [wt]는 「ㅍ」/p'/으로 表記되겠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ㅂ으로 表記되었는데, 그것은 「ㅂ」/p/과 「ㅍ」/p'/ 音素의 資質이 摩擦의 有無로 나누었기 때문인 것이다.<sup>6)</sup>

5) 「ㅍ」은 「ㅂ」의 變異音으로 보는 學者도 있고 獨立音素로 보는 學者도 있는데, 筆자는 獨立音素로 본다.

6) 漢字音 「ㅍ」終聲의 音價는 [w]로 보고 있는데, 그 音價가 어떻든 이것은 人工的인 漢字音 體系의 音으로 순수한 國語의 音韻體系와는 別個의 것이다. 특히 이 頭尾母音을 表記하는 글자는 그 音素가 母音類일 것이다.

## <16>嶺南語文學(第5輯)

ㅁ/p/ [p, b, w]

ㅂ/ɸ/ [ɸ, β]

中世語에서 口蓋性을 「ㅅ」/s/의 變異音으로 解釋한 것은 그 口蓋性이 摩擦을 수반하는 口蓋性 \*[ç]임을 立證한다. 摩擦을 수반하지 않았다면 摩擦音 「ㅅ」/s/의 變異音으로 取扱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同化에 있어 摩擦音 「ㅅ」와 合體된 것이므로 그 合體音도 摩擦性을 保存할 것이 分明하다. 特히 終聲으로 復歸되는 경우에 摩擦音 「ㅅ」/s/으로 되살아 나는 점으로 더욱 分明하다.

거리마다(楞 6:103) → 거릿기다(麟 8:42)

쇠똥(三綿孝 17) → 쇠똥(青 p. 20)

先行子音이 「ㅅ」과 「ㅂ」인 變成合用並書의 音價는 각각 口蓋化音과 脣化音으로 다음처럼 推定된다.

ㅅ[çk] ㅂ(wt)

ㅈ[çt] ㅂ(ws)

ㅊ[çp] ㅂ(wtç)

ㄴ[çn] ㅂ(wt^n)

다음으로, 行字子音이 「ㅂ-」 두 개인 合用並書를 살펴보자. 이 「ㅂ-」先行字 合用並書의 音價도 口蓋化音과 脣化音의 表記임을 다음 諸事實로서 알 수 있다.

첫째, 이것 역시 合用並書의 類이다.

初聲合用則並書(訓民正音 本文)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𡗻爲地 𡗻爲隻 𩔤爲隙之類(解例 合字解)

一字合用並書나二字合用並書나다同一한複子音形態로 表記된 것이므로同一한 類의 音價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겠다.

둘째. 行字가 「ㅅ」과 「ㅂ」의 두 音種에 限定되어 있어 一字合用並書의 口蓋性을 表記한 「ㅅ」과 圓円性을 表記한 「ㅂ」과 同類임을 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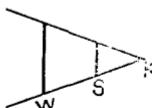
셋째. 表記된 子音 글자 사이에 音節境界가 없으므로 合體되어 單音으로機能함을 들어낸다.

넷째, 合體過程을 具體的으로 보이는 並書化의 實例가 있어 一字合用並書와同一한 合體同化音임을 들어낸다.

다섯째, 合體同化音이라면 口蓋化와 兩脣化가 重複된 調音이겠다.

先行字「ㅅ」과 「ㅂ」은 그順序가 「ㅂ-」으로 固定되고 있는데, 口蓋性과兩脣性의 重複이면 口腔內의 間隙에 따라 「ㅂ」의順序가 된다. 곧 間隙이 적은 主調音을 發音하려면 一段 口腔을 넓혔다가 좁혀야 하는데, 이 때 間隙이 큰 調音부터 間隙이 적은 調音으로 調音되어 진다.<sup>7)</sup>

ㅂ[wçk]



二字合用並書의 並書化의 例는 흔하지 않지만 다음 例는 並書化의 過程을 잘 들어낸다.

- (1) 널디다[nəmdida] … 語幹結合(複合音化)
- (2) 넓디다[nəmstida] … 「ㅅ」間音插入
- (3) 널썩다[nəmçtida] … 第一次合體同化
- (4) \*넓썩다[nəmpçtida] … 「ㅂ」間音插入
- (5) 널찌다[nəm"çtida] … 第二次合體同化

널디다(過)(月釋 10:25)

디다(落)(龍 50)

넓디다(溢)(月釋 13:10)

넓썩다(釋譜 9:10)

넓찌다(楞 8:101)

「ㅅ」間音은 主로 複合名詞에 쓰이지만 中世語에서는 複合用言, 體言과 用言 사이 등 多樣하게 쓰인 것 같다.

거슬찌다(忤)(月釋 13:55) 거슬찌다(釋譜 11:33)

거슬찌다(杜重 3:8)

\*넓디다(溢)

넓디다(月釋 13:10)

\*살지다(皺)<sup>8)</sup>

삶지다(楞 2:9)

同系濁聲間音의 一種인 「ㅂ」間音은 그 用法이 稀小하다. 「ㅅ」間音은 助

7) 여기서 말하는 間隙은 口腔內의 間隙 곧 舌面과 口蓋間의 間隙을 말한다.

8) 「살」(皺)의 古語의 用例는 띄이지 않으나 現代語의 「주름살」, 「구김살」등에 쓰이는 경우로 보아 「살」은 「주름」을 意味하는 말인 듯 싶다. 「삶지다」는 「살」(주름)과 「지다」(增大, 肥)의 合成語라고 본다.

지다 몰흐느니라(不肥)(朴初 上 22)

## <18>嶺南語文學(第5輯)

詞의 機能을 하든가 形態素를 分別시키는 文法的 機能을 하나 曰間音은 連接上의 現象에 依한 音聲的 機能(音連續의 阻止)으로 나타난 것이다. 特히 並書(各自並書 및 合用並書) 앞에서 흔히 쓰였다.

사<sup>월</sup>匹<sup>디</sup>(龍 15)

侵<sup>曰</sup>字(訓診)

사<sup>월</sup>서리(月釋 1:19)

用言語幹 사이에는 例가 보이지 않지만 音聲的 現象이면 用言 사이의 連接現象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同系統 壓聲間音은 대체로 表記하지 않는 경향을 띠어 그 例가 極히 드물다.

앞에 例 들은 「넓디다」의 例는 大獻에 띄이지 않지만 連接에 依한 「曰」間音 生成은 當然한 것이므로 그런 語形은 能히 推定할 수 있다.

위와 같은 諸點으로 보아 變成合用並書의 二字合用並書의 音價는 다음처럼 推定한다.

匹[wck]

字[wct]

## V. 固定合用並書의 音價

變成合用並書의 音價는 中世語의 並書化와 現代語의 非有氣音合體同化現象을 比較해서 口蓋化音과 脣化音임을 論證했다. 그러나, 이미 並書語形이 固定되어 버린 固定合用並書는 그러한 並書化樣狀을 따져서 그 音價를 探究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 같은 事實은 固定合用並書의 音價는 變成合用並書의 音價와 같은 것임을 立證한다.

첫째, 同一類의 並書다.

둘째, 先行子音이 「曰」과 「入」에 限定되는 音種上의 制約이나 「曰 曰 从  
入」의 結合이 이루어지지 않는 結合上의 制約이 전혀 同一하여 變成合用並書와 同一한 音聲 表記임을 들어 낸다.

셋째, 語中에 놓인 固定合用並書가 「母音間에 두 子音이 놓일 때 先行子音은 앞 音節의 終聲으로 나고 後行子音은 뒷 音節의 初聲으로 發音되는」 國語의 音節規則과는 어긋나게 두 子音 사이에 音節境界를 두지 않는 것은 合體된 單音의 機能을 함을 들어낸다.

- (1) 거리끼다(楞 6:103)
- (2) 쇠똥(三綿孝 17)
- (3) 보르쁘다(三綿烈 18)
- (4) 더뼈(金三 3:29)

만약 이들이 單純한 複子音이라면 音節境界는 두 子音 사이에 놓일 것이다.

kəriskida → kə-ris-ki-da

pɪrɪptida → pɪ-rɪp-ti-da

만약 그렇지 않고 硬音과 같은 特殊音의 記號라면 先行子音의 音價가 反映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語中에서 웃날에 先行子音의 音價가反映되고 있어 단순한 特殊音의 記號가 아님을 實證한다.

- (5) 거리끼다(楞 6:103) → 거릿끼다(翻小 8:42)
- (6) 쇠똥(三綿孝 17) → 쇠똥(青 p.20)
- (7) 보르쁘다(三綿烈 18) → 보릅쁘다(朴重下 19)
- (8) 더뼈 → 점뼈(現代語)

(5), (6), (7)의 變化例는 15世紀代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口蓋化音과 脣化音이 音素的 機能을喪失한 뒤에 나타난 것은 口蓋性\*[ç]과 圓脣性\*[w]을固守하려는 努力에 依해 [s]와 [p]의 獨立音聲으로 強化된 것이라 하겠다.

다음 例는 15世紀 以後의 語例인데, 副調音을 強化한 것을 具體的으로 들여낸다.

(A)

보르쁘다(三綿烈 18) → 보릅쁘다(朴重下 19)

\*들쁘다 → 둡쁘다(朴重中 25)

들뼈(字會上 14) → 둡뼈(朴重下 37)

(B)

(B)의 語例에는 (A)의 語例에 없던 「ㅂ」終聲이 「ㅂ」並書 앞에 添加되었는데 이것은 並書의 先行音「ㅂ」의 強化로 보아진다. 이 時期는 「ㅂ」系 並書와 「ㅅ」系 並書가 混記되어 이 두 並書의 辨別성이 혼들리고 있는 時期임을考慮하면 脣化音의 辨別性消失에 對處한 圓脣性의 強化—兩脣性의 獨立音聲化로 보아진다. 만약 獨立音聲화하면 母音間 두 子音의 先行子音은 終聲으로 되는 國語의 音節規則에 따라 自然히 終聲化한다.

以上의 諸點으로 語中의 固定合用並書는 變成合用並書와 같은 口蓋化音과

脣化音으로 認定된다.

語中固定並書가 口蓋化音과 脣化音이면 同一한 形態로 表記된 語頭固定並書도 역시 口蓋化音과 脣化音일 것이 分明하다.

母音의 並行同化로서 이루어진 口蓋化音과 脣化音은 그 形成要因으로 그 後續母音이 口蓋性母音이라든가 円脣性母音이라는 音聲環境이 存在하거나 그런 環境을 追蹟할 수 있다. 그러나, 固定合用並書는 形成要因이 된 音聲環境을 追蹟할 수 없다. 이러한 事實은 固定合用並書가 音聲的 要因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들어낸다.

그러나, 並書 自體의 音聲的 制約은 源語의 要因에 依해서 形成된 것이 아님을 들어낸다.

첫째, 並書의 先行字가 「ㅅ」과 「ㅂ」에 限定되는 音種의 制約를 갖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多音節語의 母音 壓出에 依한 並書 形成의 語源的 要因性을 否定하는 것이다. 多音節語의 母音壓出의 경우라면 구태어 그 先行子音이 「ㅅ」과 「ㅂ」에 限定될리 없고 多樣한 子音結合이 이루어질 것이다. 勿論 이런 경우라도 子音結合上에 있어서 音聲的 制約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結合 音種의 數는 한 두 音에 限制되지 않고 상당히 많을 것이다.

外國語의 初聲複子音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sup>9)</sup>

kn gn  
gd  
kr kl gr gl  
km  
gv  
tk  
dn  
tr dr tl dl  
tm dm  
tv  
mn ml

9) 여기서 例를 든 語頭子音群은 Serbo-Croatian語의 경우이다. 다음 冊에서 轉載하였다. 단 國語音素로서는 서로 變異音이 될 수 있는 것끼리 모와서 한글順으로 排列하였다.

H. A. Gleason,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Revised edition)  
p. 337.

pn  
 pt bd  
 pr pl br bl fr fl vr vl  
 ps pš  
 pč  
 sk šk zg  
 sn žn zn  
 st št žd zd  
 sl šl sr šl zr zl žl  
 sm šm žm zm  
 sp sf šp žb sv šv zv žv  
 sč  
 sh  
 čl  
 čm  
 čv jb  
 ht  
 hr hl  
 hm  
 hv  
 skr skl zgr žir žgl  
 skv  
 str štr zdr ždr  
 stv zdv  
 smr  
 spr spl svr svl

○ 外에도 複音的單音(digraph)도 있다.<sup>10)</sup> 이 경우는 先行音은 軟口蓋音  
 ○ 고 後續音은 脣音인 結合上의 制約이 있어 中世國語의 並書의 結合과는  
 結合 樣狀이 틀린다.

gb kp ſm

그뿐 아니라 母音이 없는 子音單語도 報告되어 있다.<sup>11)</sup>

10) H. A. Gleason의 前揭書 p. 307.

11) H. A. Gleason의 前揭書 p. 337.

Daniel Jones pp. 155~156.

## <22>嶺南語文學(第5輯)

xk<sup>w</sup> t<sup>x</sup><sup>w</sup>  
sk'lxlxc

둘째, 結合上의 制約을 갖고 있다.

單純한 母音壓出이라면 「ㅋ, ㅌ, ㅍ」은 각각 [sč pk pn]이며 다음의 (A) 같은 結合도 可能할 것이다.

(A)	(B)
ㅋ[sč]	sč
ㅌ[pk]	
ㅍ[pn]	pn

위例의 (B)는 앞에서例는 바 있는 外國語의 初聲複子音(initial consonantal cluster)으로 對應시킨 것이다. 外國語의 경우와 比較해 봐도 그런 結合은 可能함을 알겠다. 그러나, 中世國語의 並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結合이 不可能했다. 이러한 事實은 中世語並書가 單純한 子音群이 아님을 立證한다.

따라서, 固定合用並書의 形成要因은 音聲的面이나 語源的面을 떠난 다른 데에서 求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注目할 事實은 15世紀代에 並書인 口蓋化音과 脣化音은 非口蓋化音과 非脣化音에 對立되는 音素로 定立되어 있었다는 事實이다. 이와 같은 音素對立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同音語衝突을 治療하게 되는 事實을 알 수 있다. 다음의 (A)와 (B)의 對立을 살펴보자. (B)便의 語彙에 並書의 先行子音「ㅂ」과 「ㅅ」 또는 「ㅍ」이 없다면 (A)便의 語彙와 同音語衝突을 이르킬 것이다.

례(竹)(釋譜 13:53)	빼(時)(解例, 后)
그리다(畫)(龍 43)	빼리다(包)(月釋 2:42)
글(文)(月印 35)	嬖(鑿)(救方下 32)
더(處)(月釋 1:26)	빼(掘)(釋譜 6:27)
다(皆)(龍 11)	싸(地)(解例, 合)
덜다(減)(月釋 2:37)	별다(拂)(楞 9:80)
동(破片)(月釋 8:88)	뚱(糞)(月釋 13:21)
둔(月)(月釋 1:1)	匼(女)(釋譜 6:3)
벼(稻)(解例·用)	.DataContext

트다(受)(釋譜 19:2)      뾰다(剖)(月釋 23:73)

芟다(芟)(法華 2:113)      뜯다(裂)(釋譜 6:32)

語中子音의 合體同化音(口蓋化音과 脣化音)이 一段音素로 定立되면 音韻體系上에 口蓋化音과 非口蓋化音, 脣化音과 非脣化音이 對立關係를 形成한다. 이 對立關係가 同語音에 適用되면 同音語 治療가 되므로 그 治療現象으로, 衝突하는 同音語의 한 便에 口蓋化音化 또는 脣化音化가 일어나 수많은 固定並書가 形成된 것으로 推理된다. 15世紀 以前의 國語音韻을 分明히 理解하기 하는 資料가 거의 없으므로 언제 이런 現象이 일어나서 어떻게 發達해왔는지 알 수 없으나 15世紀語에 수많은 並書가 이미 形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前에相當한 時間을 經過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듯 音聲的 또는 語源的 要因이 아니고 音素數를 擴大시키는 音韻變化는 有氣音化 現象에서 그 類例를 볼 수 있다.

칼(刀)(龍 22)	→ 칼
코(鼻)(樂學·處容)	→ 코
팔(臂)(解例·用)	→ 팔
풀무(冨)(訓蒙下 16)	→ 풀무
탓(因)(月釋 21:105)	→ 탓

中世語 合用並書는 變成合用並書나 固定合用並書나 모두가 口蓋化音과 脣化音이며 이를 二重調音의 音을 音素로는 複音素로 分析하여 並書로 表記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表記된 音素面에서 보아 複音素가 口蓋化音과 兩脣化音으로 發音되는 것을 說明하자면 並書의 先行子音은 不完全破裂音子音이라고 할 수 있다. Daniel Jones는 英語에서 不完全破裂音(Incomplete plosive consonants)을 設定하였는데, 이것은 語中에 두 破裂音이 놓일 때 그 先行破裂音은 破裂의 過程을 喪失하거나 長音이 되든가 그 性格이 變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sup>12)</sup>複子音의 發音傾向은 言語에 따라 다른데, 國語의 경우는 完全한 複子音의 發音은 不可能하기 때문에 先行子音을 不完全하게 發音하여 口蓋化音과 脣化音으로 發音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2) Daniel Jones, 前掲書. pp. 155~156.